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Market Insight
2026.5.12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유가 상승을 이긴 AI 붐..S&P500 7,400 돌파

- 미국증시 주요 강보합 마감: 나스닥·S&P500 또 '사상 최고치'
- 미국-이란 협상 교착, 갈등 고조..국제유가/국채금리 동반 상승
- CPI 발표 D-1..4월 물가 "예상보다 더 강할 수도"

Summary

미국증시 상승: S&P500·나스닥 사상 최고가 '또' 경신

5월 11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이란과 미국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는 등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는 분위기 안에서도 소폭 상승 마감. AI 기술주, 반도체주 상승이 시장 상승을 이끌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19% 상승한 49,704.47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19% 상승한 7,412. 84에 거래를 마침. S&P500 지수가 7,400선대에 마감한건 이번이 처음. 나스닥 지수도 0.10% 상승한 26,274.13에 거래를 마쳐 전일에 이어 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0.33% 상승한 2,780.64에 거래를 마침.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6.92% 상승한 18.83에 마감.

(다우 +0.19%, 나스닥 +0.10%, S&P500 +0.19%, 러셀2000 +0.33%)

TACO 가고 NACHO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일 자신의 SNS에 종전 협상 관련 이란의 제안을 읽었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일축했고 이 날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이어 백악관 행사에서 그는 이란과의 휴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생명 연장 장치'를 연결해놓은 상태와 비슷하다고 말했고,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JD 밴스 부통령 등 주요 각료와 국가안보팀 회의를 열 계획이며 군사 옵션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오를 수 있다고 보도.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응분의 대응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장 마감 이후에도 이란은 미국을 향해 "우리의 제안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결정을 미루면 대가가 커질 것"이라고 위협.

이렇듯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군사 행동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계속되자 국제유가와 미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도 반등하는 등 중동 우려는 전반적 리스크 회피 심리를 자극함.

월가에서는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 트

레이드가 가고 이제는 NACHO(Not A Chance Hormuz Opens, 호르무즈가 열릴 가능성은 없다) 트레이드가 왔다는 이야기가 나옴. 나초는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높은 유가가 시장의 상수로 자리잡았다는 의미로 시장이 빠른 해결책에 대한 기대감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상황을 의미. 브렌트유는 현재 지난달 말의 고점 125달러에서는 하락했지만 여전히 전쟁 이전 대비 38% 이상 높은 상태이며 선박 부과 전쟁 보험료는 3월 선박 가치의 2.5%까지 급등해 전쟁 전(0.1)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음.

반도체가 지지한 시장 상승

그럼에도 주식 시장은 지속되고 있는 대규모 AI 투자와 그 수혜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에 기대 상승세를 유지함. 전일에 이어 이날도 특히 반도체주가 시장 상승을 하드캐리. 인텔이 지난 금요일 애플과의 칩 제조 예비 계약 보도로 14% 급등한데 이어 추가 상승했고 퀄컴은 이날 상승으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 이외에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엔비디아, 시게이트, 웨스턴디디털, 램리서치 등 주요 종목이 상승세를 이었으며 전일 5% 이상 급등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59% 추가 상승함. 다만 엔비디아와 테슬라를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은 모두 하락해 시장 심리가 제한적 범위 안에서 쏠리고 있음을 반영.

S&P500·나스닥 지수 전망 상향

S&P500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이날 7,400선도 넘어선 가운데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 대표는 연말 지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함. 야데니 대표는 기존 7,700으로 제시했던 지수 목표치를 8,250으로 상향한다고 밝히며 “기업 실적 추정치가 정말 경이롭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수준”이라고 설명. 그는 “핵심은 경제의 회복력과 소비자의 회복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며 경제와 소비자의 회복력이 유지된다면 기업 실적도 마찬가지 방향성을 보일 것”이라고 말함. 야데니 대표는 2029년 말까지 S&P500 지수 1만선 목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다만 그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힘. 한편 최근 S&P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에 대한 눈높이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HSBC는 기존 7,500이었던 연말 지수 목표치를 7,650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8,000선을 상회할 가능성도 제시. CFRA는 기존 7,400이었던 목표치를 7,575로 상향.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아직 AI 혁명의 초반부에 있을 뿐이라며 반도체 수요 대비 공급은 10:1 수준으로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에 처해있으며 이는 관련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으로 AI발 강세장의 신화를 증명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말함. 그는 이 같은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향후 1년래 나스닥이 3만선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

“4월 CPI 예상보다 강할 수도”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공개를 하루 앞둔 가운데 블룸버그는 4월 헤드라인 CPI가 전달 대비 0.6% 상승,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0.3% 상승할 것으로

전망. 종합 CPI의 전월 대비 상승폭은 직전달 대비 다소 줄어들 전망이지만 근원 CPI는 오히려 상승폭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란 전쟁 여파로 휘발유 가격과 항공료가 상승해 4월 CPI와 근원 CPI가 모두 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

다만 휘발유 가격을 차치하고 봐도 4월 수치가 예상 외로 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음. 지난해 43일간 이어졌던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통계 왜곡이 이번 4월 물가에 바로 잡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셧다운 당시 미국 노동통계국은 일부 주거비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해 임대료 물가를 사실상 '0'으로 처리했던 바 있음. 당시 과소 왜곡된 데이터가 이번 4월 지표부터 바로 잡혀 반영되면서 주거비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것.

이번주 미국에서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현지시각 12일과 13일 각각 발표되며 14일에는 4월 수출입물가지수가 공개될 예정.

특징종목

반도체주 상승 지속..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2.59% ↑

반도체주 강세가 이어짐. 애플(-0.22%)과의 칩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전 거래일 14% 급등했던 인텔(+3.62%)이 추가 상승. 기술 전문 매체 톰스하드웨어는 현지시각 11일 SK하이닉스가 인텔의 '임베디드 멀티다이 인터커넥트 브릿지(EMIB)' 기술을 활용해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결합하는 연구개발에 착수했다고 보도. 이번 협력은 HBM 수요 폭증에 대응하고 특정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SK하이닉스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됨. 이 소식은 전거래일 한국 증시에서 SK하이닉스가 급등한데 이어 인텔 주가 추가 상승 요인이 됨. TSMC는 뉴욕 거래에서 1.73% 하락함. 극심한 공급 부족을 맞고 있는 HBM 시장 내에서 독보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6.50%)는 하이퍼스케일러의 Capex 증가와 맞물려 지속되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연일 상승 중. 지난주 시가총액 8천억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마이크론은 이날 상승으로 시가총액이 9천억 달러에 육박함(8,969억 달러). 삼성전자 사업과 그로 인한 공급 차질이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마이크론에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도 주가 상승세에 불을 붙임. 이외 퀄컴(+8.42%)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 텍사스인스트루먼트(+3.46%), 웨스턴디지털(+7.46%), 시게이트(+6.56%), 램리서치(+0.68%),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88%) 등이 동반 상승. 이에 전 거래일 5% 이상 급등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이날도 2.59% 상승.

반도체주를 제외하고는 M7 종목들은 대체로 하락 압력을 크게 반영했지만 테슬라(+3.89%)는 비교적 크게 상승. 파이퍼샌들러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의 가치를 사실상 공짜로 얻을 수 있다며 목표가를 500달러 수준으로 제시. 중국에서의 완전자율주행(FSD) 출시 기대와 로보택시 사업 확대 계획, 일론 머스크 CEO의 중국 방문 이슈가 겹쳐 향후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가 재부각됨.

중동 긴장 고조, 유가 상승-에너지주 강세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다시 고조되며 군사 행동 가능성 재개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방산주가 상승. GE(+1.22%), RTX(+1.43%), 록히드마틴(+1.13%). 중동 긴장에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엑슨모빌(+3.54%), 셰브론(+1.72%), 옥시덴털 페트롤리엄(+3.98%), EOG 리소시스(+2.52%) 등 에너지주도 강세. 유가 상승은 에너지주 이외에도 비스트라(+2.93%), GE 버노바(+3.17%), 뉴스케일파워(+5.90%), 오클로(+7.75%) 등 원자력, 전력 관련 기업 강세 모멘텀으로 반영됨. 델타 에어라인스(-2.90%),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2.97%),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4.19%), 익스피디아 그룹(-3.70%) 등 여행/항공 관련주에는 비용 부담 증가로 하락 요인.

이외 특징주-광통신, 양자 등

광통신 장비업체 루멘텀 홀딩스(+16.52%)는 나스닥 100 지수 편입 소식에 힘입어 급등. 루멘텀은 오는 18일부터 코스타 그룹(+0.46%)를 대신해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될 예정이라고 밝힘. 광통신 장비업체 코히어런트(+13.25%)도 수급 유입 기대감에 동반 강세.

한편 양자 컴퓨팅 관련 기업들도 속속 전분기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데 광전자 및 양자컴퓨팅 전문 기업 쿼텀 컴퓨팅(+6.04%)은 LSI 인수 효과에 힘입은 견고한 수주 잔고에 1분기 매출이 9,000% 급증했다고 밝히며 시간외 거래에서 추가 상승. 다만 역시 양자 컴퓨팅 기업 리게티 컴퓨팅(+8.29%)은 1분기 실적이 예상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나자 정규장 8%대 상승을 뒤고 하로 시간외 거래에서 소폭 하락. 디 웨이브 퀀텀(+6.47%), 아이온큐(+15.54%) 등 관련주는 시간외 거래에서 혼조.

원격 의료 플랫폼 힘스 앤드 허스 헬스(+3.08%)는 현재 분기 이익 전망을 시장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공개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하락.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0.23%)는 1분기 적자 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69.8% 줄었다고 밝혔지만 현재 진행 분기 매출 전망을 시장 예상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시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급락.

마라 홀딩스(+3.48%)는 디지털 자산의 공정가치 변화에 따른 손실로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하회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 비트코인 채굴 및 데이터 센터 개발 업체인 클린스파크(+0.70%)도 전분기 손실이 시장 예상보다 컸고 매출 또한 예상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

위성 개발업체 AST 스페이스모바일(+9.99%)은 전분기 손실이 예상보다 확대된 가운데 시장 기대 수준의 연간 매출 전망을 제시하자 시간외 거래에서 크게 하락.

깃랩(-1.31%)은 AI 에이전트 사업 진출과 관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

고프로(-3.65%)는 이사회가 회사 매각 또는 합병을 포함하는 전략적 대안에 대한 공식 검토를 승인했다는 소식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급등.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단기물 중심 상승

미 국채금리는 단기물을 중심으로 상승. 집권 노동당의 지방선거에서의 참패에도 총리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 대해 사임 요구가 거세지고 있고 이는 영국 국채(길트) 수익률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는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침.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취약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다시 군사 행동이 테이블 위에 옵션으로 오르고 있다는 악시오스의 보도가 있었고 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채금리 상승 요인이 됨. 미국 오후 장 들어 실시된 3년물 입찰에서 부진한 수요가 확인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5.6bp 상승한 3.949%에 마감했고, 10년물 금리는 4.7bp 상승한 4.412%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국채금리는 4bp 상승한 4.987%를 기록.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 대비 다소 낮은 70% 초반대로 가격에 반영함. 연내 25bp 이상 금리 인상 가능성은 10% 중반대에서 20% 중반대로 높아졌고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5%대로 낮아짐.

달러화 가치 소폭 상승

미국 달러화 가치는 이란과의 휴전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국제유가가 상승하자 강세 압력을 받아내며 소폭 상승.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JD밴스 부통령 등 주요 각료와 국가안보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군사 옵션이 다시 테이블 위에 올라오고 있다고 보도. 이란의 종전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응분의 대응을 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함. 기대했던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양측이 다시 날 선 말들을 주고받는 가운데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장 대비 0.069% 소폭 상승한 97.959를 기록.

지방 선거에서 집권 노동당이 참패했음에도 총리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키어 스타머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파운드-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076% 하락했고 유로-달러 환율도 0.015% 소폭 하락.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전일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 1,472.40원 대비 0.30원 상승한 1,472.70원에 마감했으며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474.30원을 기록.

국제유가 이틀째 상승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상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을 구출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어

백악관 행사에서 이란과의 휴전이 유지되고 있지만 “그건 믿을 수 없을만큼 약한 상태”라고 발언. 양측의 군사 행동 재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오는 상승폭을 확대해 WTI는 장 중 4% 이상 상승해 100달러에 근접. 다만 오는 14~15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을 앞두고 긴장 고조와 관련한 의미 있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해 오후장 들어 유가 상승폭은 다소 축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2.78% 상승한 배럴당 98.07달러에 마감.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5일 이후 최고치.

국제 금값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보합. 다만 은값은 급등.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은 7% 가까이 급등해 온스당 86달러 초반대를 기록. 5거래일 연속 상승 중.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